광주은행 3분기 누적 순이익 1633억원 …역대 최대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18.6% 증가…총 영업이익 4599억원
지역밀착 포용금융·고객 중심 현장 경영·디지털 금융 등 성과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은행이 올해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 163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광주은행은 올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별도 기준) 1633억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377억원)에 비해 18.6%(256억원)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최근 5년 동안(2017년 1285억원→2018년 1414억원→2019년 1397억원→2020년 1377억원→올해 1633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이다.

올 3분기 누계 총 영업이익은 4599억원으로, 지난해(4308억원)보다 6.8%(291억원) 늘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연체비율은 각 0.34%와 0.36%로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했다.

BIS 자기자본비율 16.87%, 보통주 자본 비율 15.38% 등도 안정적이다.

광주은행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라는 송종욱 은행장의 경영이념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 고객 중심의 현장 경영 등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앞서 이달 중순 개최한 4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소상공인·중서민 대상 금융지원 확대 ▲질적성장과 선제적 위험 관리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 내걸었다.

올해 광주은행의 주요 행보는 '지역밀착경영'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경영 실천'으로 압축된다.

포용금융센터를 필두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년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주은행이 260억원을 출자하며 3대 주주로 나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신차 '캐스퍼'를 출시하며 순항하고 있다.

송종욱 행장이 지난 2019년 취임 후 출시한 '광주·전남愛사랑카드'로 거둔 수익금 7억2000만원은 지역사회에 기부됐다.

송종욱 광주은행장

그동안 광주은행은 지역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며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표적 혁신기업인 '토스'와 교류를 통해 금융기술(핀테크) 변화에 대응해왔다. 최근에는 '광주은행 개인뱅킹'을 전면 개편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100개 업무에 대한 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초 ESG 전담 기구와 부서를 신설한 광주은행은 생산적 금융과 녹색금융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ESG 인증등급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1000억원 규모의 원화 ESG채권을 발행하며, 친환경사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조달된 자금을 사용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광주천 릴레이 봉사활동,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장학사업,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장학사업, 코로나19 취약계층·의료진 긴급구호꾸러미 전달 등도 지속되고 있다.

송 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출규제 강화, 빅테크(정보기술) 기업의 공격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지만, 4분기 남은 기간동안 소상공인 지원 확대, 건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구조변화와 그 대상인 고객의 변화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남은 2021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며 "특히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현장 실천으로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지역금융 발전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치열해진 경쟁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한전-중기 상생발전 지원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7일 한국전력공사와 '지역 중소기업과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 관계자와 한전에 제품을 납품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의 한전에 대한 판로 확대와 지역 물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확대, 한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공공구매제도 적극 활용, 가구류 구매시 납품 요구조건 완화, 혁신도시 소재 지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등 지역 중소기업계의 현안 문제가 주를 이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전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운영과정 등에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내달 10일까지
광주·전남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반기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비대면으로 제공해 청년 구직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중기청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잡코리아 추천기업 채용관,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채용관 등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10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http://myjob.jobkorea.c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취업희망기업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참고자료, 이력서 양식, 면접답변, 직무별 인터뷰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대교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 일자리박람회 행사를 통해 우리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많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으로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력공급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25.49 (-23.59)
↓	코스닥	1008.95 (-2.81)
↑	금리 (국고채 3년)	2.044 (+0.097)
↑	환율 (USD)	1170.00 (+2.40)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에
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시험장

한국전력은 27일 전북 고창전력시험센터에 세계 최고 전압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시험장을 준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험장에선 세계 최고 전압인 ±800kV급 HVDC 케이블의 동작·성능·규격 등을 국제 표준에 맞춰 시험할 수 있으며 2개의 HVDC 케이블 동시 시험도 가능하다.

HVDC는 기존 교류송전보다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고 손실이 적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HVDC 케이블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해외 수요 증가 속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려면 신제품 및 신기술 실증시험이 가능한 HDVC 시험장이 필요하다.

한전은 이번 시험장 준공으로 현재 개발 중인 HVDC 케이블 실증시험을 국내에서 손쉽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유럽 인증기관에서 국제공인인증시험을 진행할 때보다 인증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되고 시험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전은 전했다. 한전은 이 시험장을 통해 HVDC 케이블 실증시험을 완료한 뒤 2023년 1.2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2024년 1.5GW 신안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이 시험장을 국내 케이블 제작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 기지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HVDC 케이블 시험 인프라 보유로 세계적 규모의 전력시험센터로서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롯데아울렛 남악점 예술인 지원으로 지역과 동반성장

청년작가 5인전…전시·판매
지역작가 20여명 다양한 지원
뮤비 제작 등 홍보물 협업도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유통매장 롯데아울렛 남악점이 지역 작가들이 성장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7일 롯데아울렛 남악점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점포 1층 러블리 스퀘어에서 진행한 '지역 청년 작가 작품전'은 총 1000여 명의 고객이 관람했다.

이곳에서는 청년 작가 5인의 작품이 전시되는 동시에 판매도 병행됐다.

전시 기간 동안 청년 작가의 작품 20여 점이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구매 고객들은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 설명을 듣고, 배송 서비스도 제공받았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저마다 대표작들을 내놓으며 지역민들과 만났다.

대표 작품으로는 정민정 작가의 '사이집', 신형만 작 '언신 플레이. 라인', 곽태영 작 '도넛박스' 정주은 작 '피씨스 오브 소울', 김민우 작 '댄싱 인 서클' 등이 있다.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지난 2019년부터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작가 이귀님씨와 협업한 롯데아울렛 남악점 안내도.

서예, 미술, 사진 등 지원하는 예술 부문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롯데아울렛 남악점이 지원한 지역 예술인은 20명이 넘는다.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창작활동과 작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작가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인 '예술로 사업'에 선정되며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귀님 작가와 힘을 합해 매장 안내도를 꾸미고, 지역 청년 음악가가 참여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점포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 영상도 고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병일 점장은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